

# 인문학

## 제시문 1

우리 사회에는 ‘빈말’이 만연(蔓延)해 있다. 유세 현장에서 “호국영령의 수호 아래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오른 우리 조국(祖國)”에 대해 열변하는 정치인의 연설을 생각해 보자. 이는 분명 빈말이다. 물론 이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청중이 믿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그는 호국영령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 조국이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정말 들어섰는지와 관련해 그것의 진위(眞僞)나 청중이 그것을 정말로 믿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다.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빈말은 빈번히 나타난다. 여러 채의 집을 사 두었던 사람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을 두고 “우리 같은 사람도 먹고 살게 해 줘야지. 요즘 정말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 기분이라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말이 그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할 것이다. 그 말이 거슬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거짓되게 기술(記述)했다거나 정확히 기술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의 기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가 실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제시문을 토대로 빈말과 거짓말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거짓말도 빈말도 아니면서 듣는 이를 오도(誤導)하는 말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1-2.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빈말을 더 빈번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로는 무엇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 제시문 2

긍정적 사고는 성공이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실패가 구조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쁜 태도의 결과라고 믿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집단적인 환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사고는 종종 부(富)를 획득하고 성공을 이루며 질병을 극복하는 비결로 제시된다. 우리는 인종, 계급, 성차(性差) 같은 불평등한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가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믿고 싶어 한다. 낙관주의가 물질적인 성공의 열쇠이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면 실패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의 이면(裏面)에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실패해야 다른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지만, 긍정적 사고의 이념은 성공이 노력하기 나름이고 실패가 당사자의 탓이라고 역설한다.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富)는 유리한 조건을 독점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이 가치화된 형태이며, 건강은 환경과는 무관한 태도의 문제이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를 거부하는 불신자들, 실패자들과 패배자들, 불평분자들은 개인적인 기질을 세상을 설명하는 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실패에 따르는 이점이 있다. 파산을 겪고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덕택에 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만연(蔓延)한 불평등에 맞설 수 있다.

2-1. 본인이 읽은 책에서 적절한 인물 하나를 예로 들어서, 위 제시문에서 규정하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각각 그 인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설명하십시오.

2-2. 위 제시문은 ‘긍정적 사고’의 문제점과 ‘부정적 사고’의 이점을 부각시킨다. ‘부정적 사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활용 모집단위	활용 문항
[오전] 자유전공학부	[제시문 1] 1-1
[오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제시문 1] 1-1, 1-2
[오후] 자유전공학부	[제시문 2] 2-1
[오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제시문 2] 2-1, 2-2

## [제시문 1]

### ❖ 출제 의도

[문제 1-1]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평가

[문제 1-2] 현상의 원인을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사고로 추적하는 능력 평가

### ❖ 제시문 해설

제시문에서 필자는 빈말이 거짓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빈말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듣는 이가 그것을 참인 것으로 믿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빈말은 그런 의도 없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그 말이 실상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로 규정된다.

### ❖ 출전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의 “On Bullshit”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안한 글로, ‘bullshit’은 ‘빈말’로 옮겼다.

### ❖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개념] 추론적 듣기(의사소통 맥락 고려하기, 청자의 화자 요구 분석)

[출처] 화법과 작문 I, 교회사, 94~95쪽, II-3 소통의 전략

화법과 작문 I, 천재교육, 94~95쪽, II-3 의사소통 전략

화법과 작문 I, 지학사, 84쪽, II-2 사회적 상호 작용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238~247쪽, V-3 추론적 이해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132~142쪽, 2-2 추론적 독해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106~123쪽, II-2 독서의 수행

**[제시문 2]**

❖ **출제 의도**

[문제 2-1]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과 제시문을 독서 경험과 연결하는 창의력을 평가한다.

[문제 2-2]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

이 제시문은 미국적 낙관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긍정적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사고’를 그 대안으로 내세운다. 제시문에 따르면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긍정적 사고**’ 개인의 낙관적 태도와 성실함이 세속적 성공과 역경 극복의 비결이라고 믿는 태도.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배 구조 유지에 봉사한다.

‘**부정적 사고**’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확보하게 된 상태.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개인은 성공과 실패 배후에 자리 잡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직시할 수 있다.

❖ **출전**

Halberstam, Judith, 2011, *The Queer Art of Failure*, Durham: Duke UP.

Ehrenreich, Barbara, 2009, *Bright-sided: How the Relentless Pursuit of Positive Thinking Has Undermined America*, New York: Metropolitan.

❖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개념] 개인과 사회

[출처]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64~70쪽, 2-2 인간과 사회 구조

[개념] 사회 제도와 구조

[출처] 도덕, 미래엔, 64쪽, II-1 사회 제도와 정의

도덕, 금성출판사, 76쪽, II-1 사회 제도와 정의

사회·문화, 교학사, 교학사, 68~75쪽, II-2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